

<표지>

목 차

1. 인사말 1
 - 허요환 목사 : 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2. 발제 1 : 이주민의 종교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 3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3. 발제 2 : 다문화 사회, 이주민과 종교 다양성 25
 - 오경석 : 인하대학교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학과 겸임교수

4. 발제 3 : 안산제일교회 이주민 사역과 역파송선교에 대한 사례 발표
..... 43
 - 한지훈 : 안산제일교회 선교위원회 담당목사

인사말

허요환 목사(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

지난 3년여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익숙했던 교회의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거나 변화하게 되었고, 새로운 신앙문화나 표현 형태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교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님들의 증가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도·선교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안산시 10개 국가의 455명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종교활동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는 한국교회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국에서 믿은 종교와 한국으로 이주 후 접촉한 종교, 개신교와 접촉여부, 종교별 호감도, 종교에 대한 이주민들의 요구사항 등과 같은 세부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교회가 전도와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세미나에 발제를 맡아주신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님과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학과 겸임교수이자 현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님과 안산제일교회 선교위원회 담당 한지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목회자분들과 각 언론의 종교 담당 기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주민 사역에서 더 나아가 역파송 선교까지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발제 1.
**<이주민의 종교의식
및 종교생활 조사 결과>**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조사 개요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안산시 이주민상담센터 방문 이주민 455명
조사 방법	안산시 이주민상담센터에 방문한 10개 국가의 이주민들에게 자국민 상담원의 지도하에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실행
표본 규모	총 10개 국가 455명 (유효 표본) - 국가 선정 근거: 안산시 외국인 거주민 비율과 비교, 가장 비율이 높은 10개 국가 선정 (중국,우즈베키스탄,러시아, 카자흐스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네팔,캄보디아,태국)
표본 추출	국적 등록 외국인 현황 기준 비례할당 및 가중치 적용*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2년 7월 4일 ~ 8월 22일(50일간)**
조사 의뢰	안산제일교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전체		(455)	100
*국적	중국	(100)	22.0
	우즈베키스탄	(41)	9.0
	러시아	(41)	9.0
	카자흐스탄	(43)	9.5
	베트남	(41)	9.0
	인도네시아	(37)	8.1
	필리핀	(41)	8.1
	네팔	(41)	9.0
	캄보디아	(40)	8.8
	태국	(30)	6.6
성별	남성	(235)	51.8
	여성	(213)	46.8
	무응답	(6)	1.4
연령	29세이하	(57)	12.5
	30대	(180)	39.6
	40대	(91)	20.0
	50대	(60)	13.2
	60대이상	(60)	13.2
	무응답	(6)	1.3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전체		(455)	100
이주년도	2010년 이전	(118)	26
	2011년~2016년	(165)	36.3
	2017년 이후	(167)	36.8
	무응답	(4)	0.9
	현재 종교	(37)	8.1
현재 종교	개신교	(37)	8.1
	카톨릭	(24)	5.3
	이슬람	(24)	5.3
	불교	(55)	12.1
	힌두교	(7)	1.5
	러시아 정교	(1)	0.2
	종교 없음	(301)	66.2
기타/무응답	(7)	1.5	
가정 월소득	200만원 이하	(101)	22.2
	201~250만원	(119)	26.2
	251~350만원	(137)	30.1
	351만원 이상	(80)	17.6
	무응답	(17)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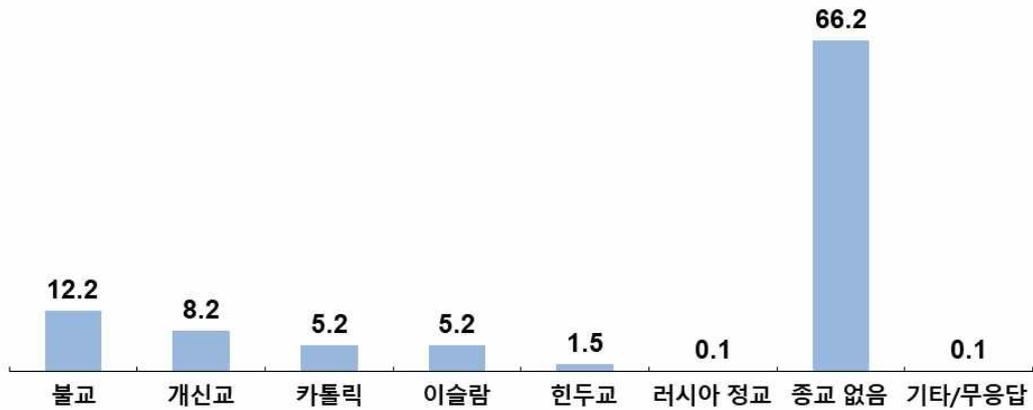
* 국적은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원데이터임을 유의
2022년 이주민 종교 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

1 한국에서의 종교 생활



1. 현재 믿는 종교 실태 - (1) 현재 믿는 종교

(Base=전체, N=4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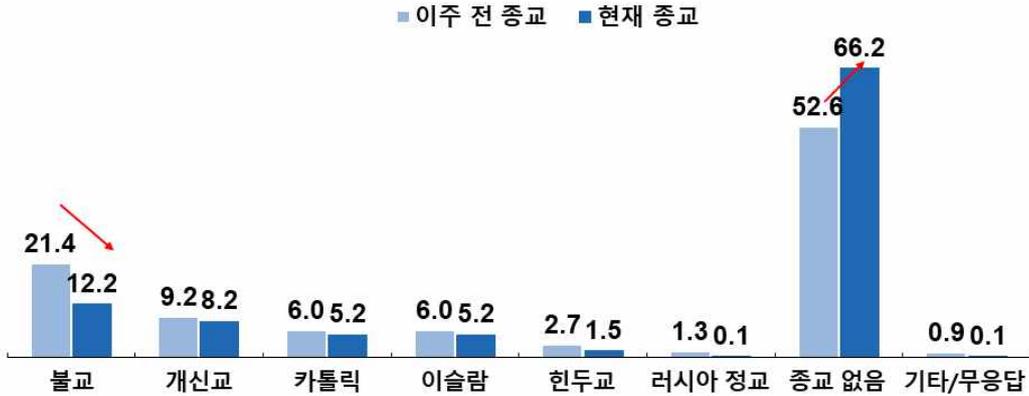
1. 현재 믿는 종교 실태 - (1) 현재 믿는 종교

구분	사례 수 (명)	불교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	힌두교	러시아 정교	종교 없음	기타/무응답	합계	
전체	(455)	12.2	8.2	5.2	5.2	1.5	0.1	66.2	0.1	100.0	
*국적	중국	(100)	3.0	11.0	2.0	0.0	1.0	0.0	81.0	2.0	100.0
	우즈베키스탄	(41)	2.4	7.3	0.0	22.0	0.0	0.0	68.3	0.0	100.0
	러시아	(41)	2.4	14.6	0.0	4.9	2.4	7.3	68.3	0.0	100.0
	카자흐스탄	(43)	2.3	9.3	0.0	39.5	0.0	2.3	46.5	0.0	100.0
	베트남	(41)	29.3	0.0	4.9	0.0	0.0	0.0	65.9	0.0	100.0
	인도네시아	(37)	0.0	0.0	2.7	91.9	0.0	0.0	5.4	0.0	100.0
	필리핀	(41)	0.0	7.3	65.9	0.0	0.0	0.0	19.5	7.3	100.0
	네팔	(41)	7.3	7.3	2.4	0.0	22.0	0.0	61.0	0.0	100.0
	캄보디아	(40)	17.5	17.5	0.0	0.0	0.0	0.0	62.5	2.5	100.0
태국	(30)	86.7	13.3	0.0	0.0	0.0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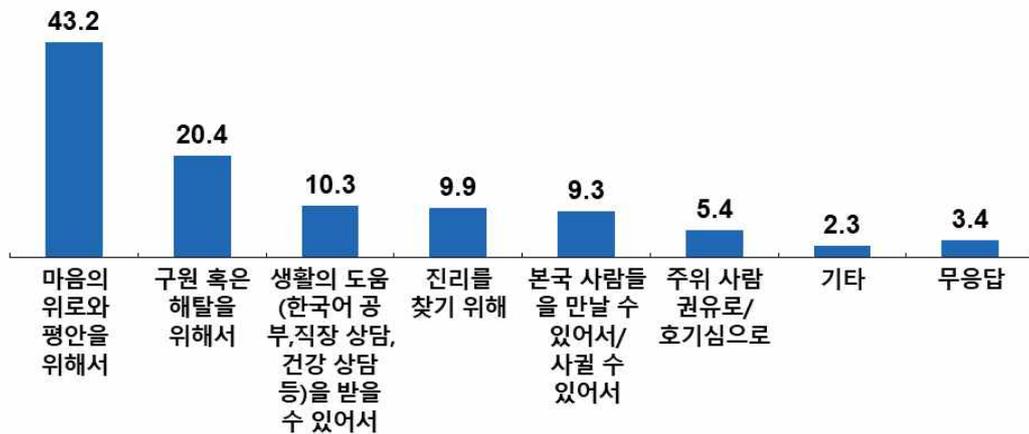
1. 현재 믿는 종교 실태 - (2) 이주 전 종교 vs. 현재 종교

(Base=전체, N=455, %)



1. 현재 믿는 종교 실태 - (3)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

(Base=현재 종교를 믿는 자, N=154, %)





Ⅱ. 한국 종교생활

1. 현재 믿는 종교 실태 - (3)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

구분	사례 수 (명)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구원 혹은 해탈을 위해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진리를 찾기 위해	본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사귄 수 있어서	주위 사람 권유로 / 호기심으로	기타	무응답	합계	
전체	(154)	43.2	20.4	10.3	9.9	9.3	5.4	2.3	3.4	100.0	
현재 종교	개신교	(37)	31.9	42.2	2.2	18.2	4.4	1.6	1.5	6.1	100.0
	카톨릭	(24)	53.0	16.7	16.0	12.0	12.7	0.0	2.1	0.0	100.0
	이슬람	(24)	58.4	19.4	0.8	13.2	0.0	0.8	6.2	3.2	100.0
	불교	(55)	37.0	7.4	19.9	3.1	17.5	13.5	1.7	0.0	100.0
	힌두교	(7)	56.4	34.2	0.0	9.4	0.0	0.0	0.0	0.0	100.0
	러시아 정교	(1)	24.1	48.2	0.0	27.7	0.0	0.0	0.0	0.0	100.0
	기타/무응답	(6)	54.1	8.3	0.0	0.0	0.0	0.0	0.0	3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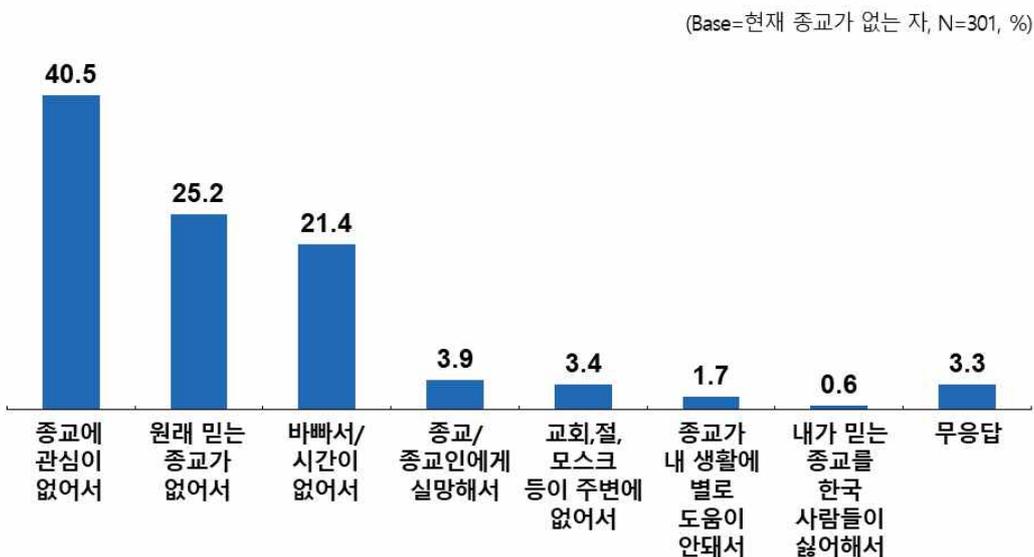
2022년 이주민 종교 인식 및 종교 생활 조사

- 10 -



Ⅱ. 한국 종교생활

1. 현재 믿는 종교 실태 - (4)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2022년 이주민 종교 인식 및 종교 생활 조사

-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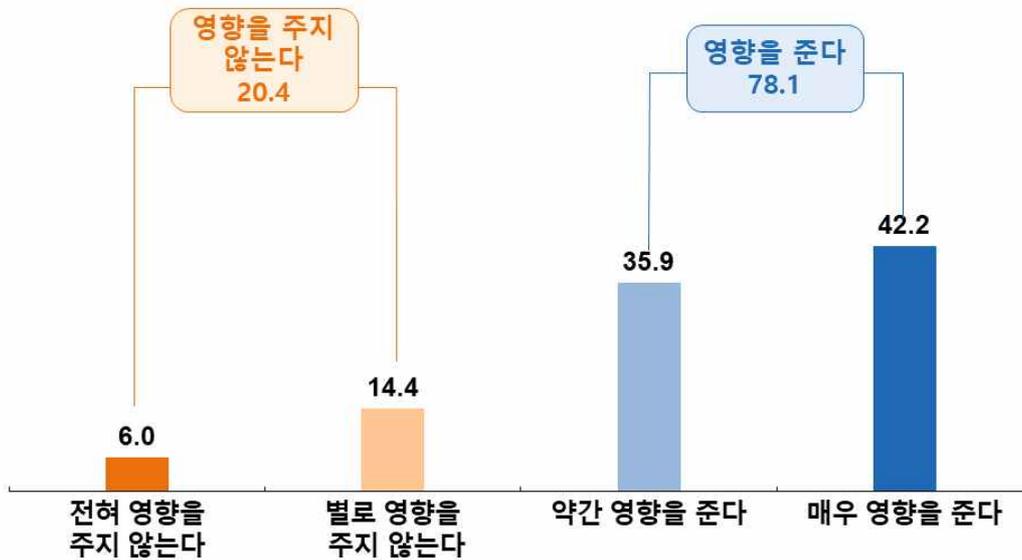
1. 현재 믿는 종교 실태 - (5) 종교 시설 방문 계기

(Base=현재 종교를 믿는 자, N=1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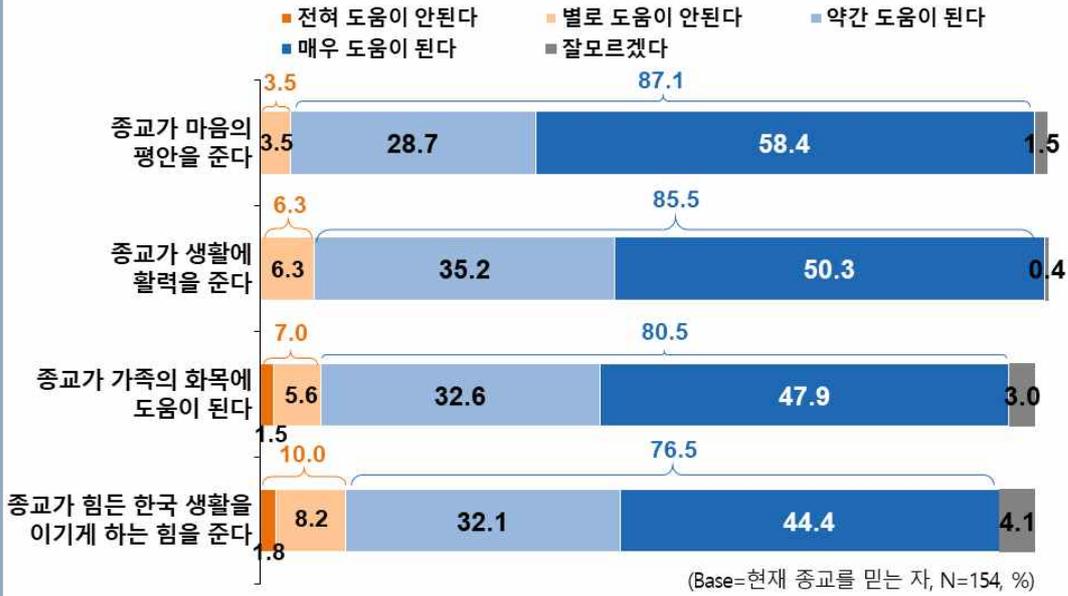
(2)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

(Base=현재 종교를 믿는 자, N=154, %)





(3) 종교가 주는 생활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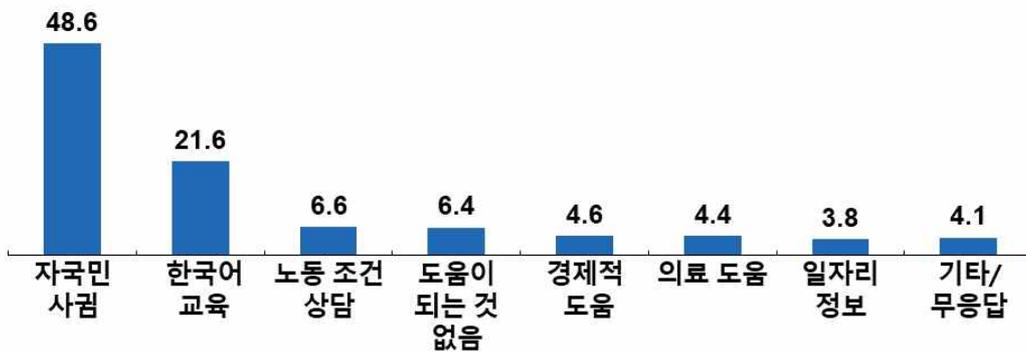
2022년 이주민 종교 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

- 14 -



(4) 종교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Base=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 시설 참석자 N=35, %)



2022년 이주민 종교 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

- 15 -



3.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 - (1) 신앙 생활 만족도

(Base=현재 종교를 믿는 자, N=1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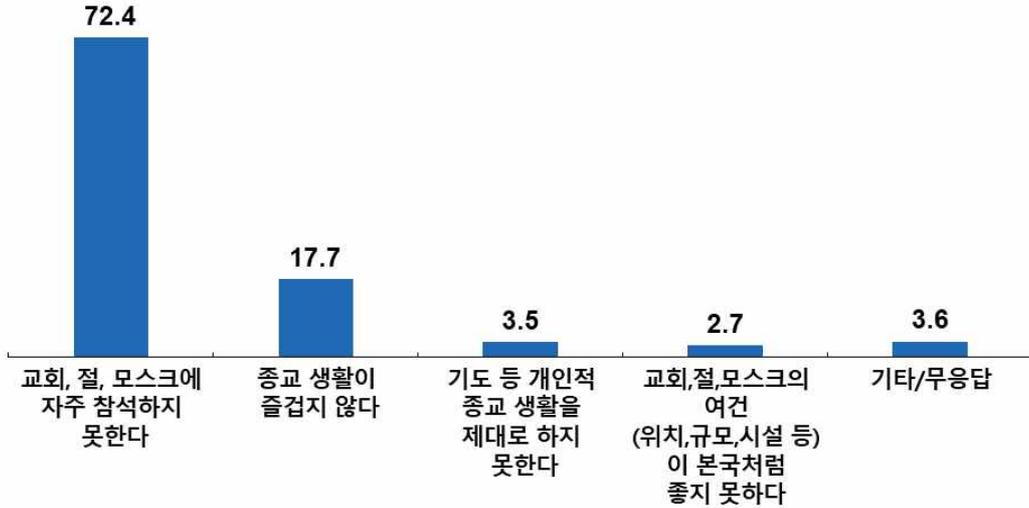
3.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 - (1) 신앙 생활 만족도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무응답	불만족	만족	
전체	(154)	2.3	12.9	48.2	34.9	1.6	15.2	83.1	
현재 종교	개신교	(37)	0.0	7.8	50.3	41.9	0.0	7.8	92.2
	카톨릭	(24)	0.0	2.1	68.9	28.9	0.0	2.1	97.8
	이슬람	(24)	3.4	21.4	33.5	41.0	0.8	24.8	74.5
	불교	(55)	4.2	15.5	46.7	29.3	4.2	19.7	76.0
	힌두교	(7)	7.0	0.0	35.2	57.7	0.0	7.0	92.9
	러시아 정교	(1)	0.0	0.0	100.0	0.0	0.0	0.0	100
	기타/무응답	(6)	0.0	37.6	37.6	24.8	0.0	37.6	62.4



3.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 - (2) 신앙 생활 불만족 이유

(Base=현재 신앙생활에 불만족하는 자, N=26, %)



2022년 이주민 종교 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

- 18 -



3.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 - (2) 신앙 생활 만족 이유

(Base=현재 신앙생활을 만족하는 자, N=128 %)



2022년 이주민 종교 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

- 19 -



3.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 - (2) 신앙 생활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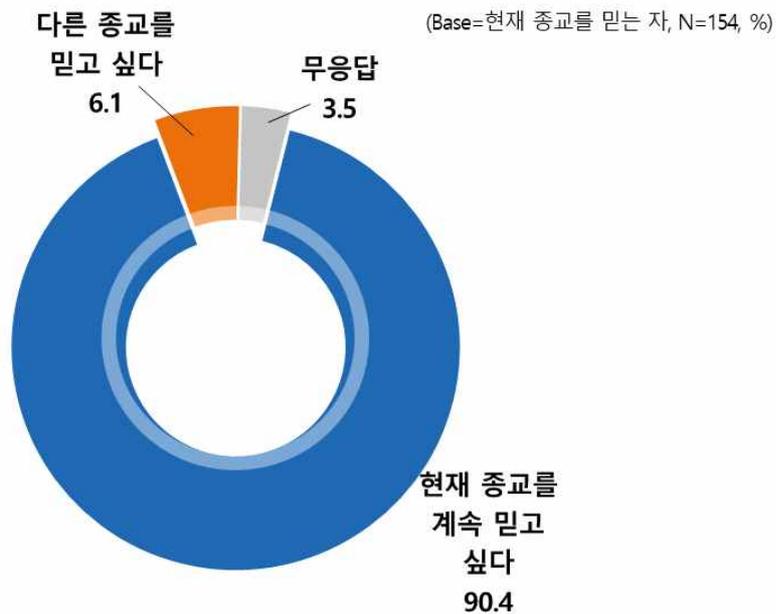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명)	힘든 한국 생활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자국민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종교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다	교회, 절, 모스크에 서의 가르치는 내용이 좋다	가정과 직장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종교지도 자가 개인적으 로 좋다	기타/ 무응답	합계
전체	(128)	29.7	21.0	15.2	14.3	14.2	3.5	2.1	100.0
성별	남성 (74)	17.5	30.5	9.5	16.6	18.6	3.8	3.6	100.0
	여성 (52)	48.0	7.3	23.8	9.4	8.5	3.1	0.0	100.0
	무응답 (2)	0.0	29.2	0.0	70.8	0.0	0.0	0.0	100.0
연령	29세이하 (19)	26.7	22.4	11.1	19.2	17.6	2.9	0.0	100.0
	30대 (59)	24.7	27.6	13.4	15.4	15.4	1.7	1.6	100.0
	40대 (28)	49.6	7.8	15.1	13.7	8.7	2.0	3.2	100.0
	50대 (15)	23.1	2.1	34.6	3.4	21.4	15.4	0.0	100.0
	60대이상 (3)	5.2	75.6	0.0	0.0	0.0	0.0	19.2	100.0
	무응답 (3)	18.4	43.7	0.0	32.1	0.0	0.0	5.9	100.0
현재 종교	개신교 (34)	48.7	2.8	17.9	7.8	19.4	1.6	1.7	100.0
	카톨릭 (23)	30.7	19.2	19.9	17.2	8.7	2.2	2.2	100.0
	이슬람 (18)	17.7	28.8	33.8	8.6	7.6	0.0	3.5	100.0
	불교 (42)	22.9	32.3	5.1	19.2	17.9	2.6	0.0	100.0
	힌두교 (6)	22.7	7.6	10.1	7.6	0.0	36.8	15.2	100.0
	러시아 정교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기타/무응답 (4)	0.0	60.2	0.0	39.8	0.0	0.0	0.0	100.0

2022년 이주민 종교 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

- 20 -



4. 종교 보유 의향 - (1) 현재 종교 보유자의 개종 의향



2022년 이주민 종교 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

- 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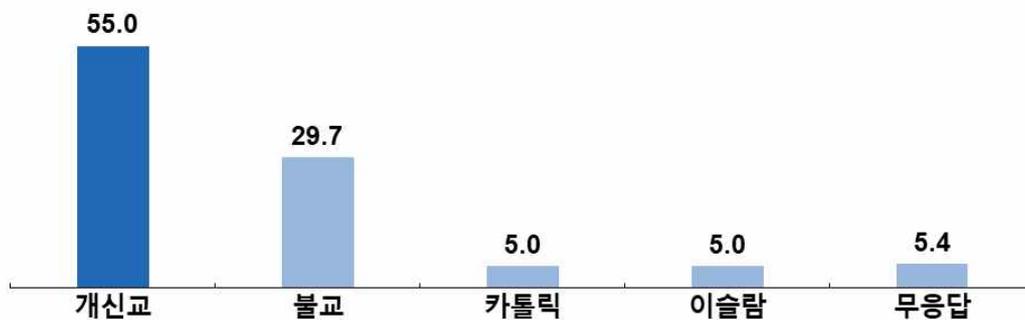
4. 종교 보유 의향 - (1) 현재 종교 보유자의 개종 의향

구분	사례 수 (명)	현재 종교를 계속 믿고 싶다	다른 종교를 믿고 싶다	무응답	합계	
전체	(154)	90.4	6.1	3.5	100.0	
현재 종교	개신교	(37)	92.6	0.0	7.4	100.0
	카톨릭	(24)	91.5	2.1	6.4	100.0
	이슬람	(24)	97.4	0.0	2.6	100.0
	불교	(55)	89.9	10.1	0.0	100.0
	힌두교	(7)	85.9	7.0	7.0	100.0
	러시아 정교	(1)	100.0	0.0	0.0	100.0
	기타/무응답	(6)	54.1	45.9	0.0	100.0



4. 종교 보유 의향 - (2) 개종하고 싶은 종교(개종 의향자)

(Base=개종 의향이 있는 자, N=9%)





4. 종교 보유 의향 - (3) 현재 종교 미보유자의 종교를 가질 의향

(Base=현재 종교가 없는 자, N=3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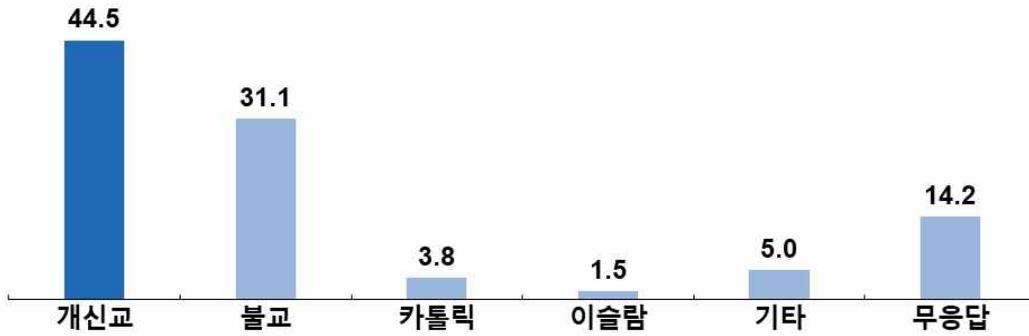
4. 종교 보유 의향 - (3) 현재 종교 미보유자의 종교를 가질 의향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의향이 없다	의향이 있다	
전체	(301)	45.4	22.8	9.1	1.9	20.8	68.2	11.0	
연령	29세이하	(31)	46.5	15.4	2.4	2.1	33.6	61.9	4.5
	30대	(105)	44.8	19.0	9.0	0.4	26.7	63.8	9.5
	40대	(60)	59.4	26.9	4.1	0.0	9.7	86.2	4.1
	50대	(45)	30.8	30.8	16.6	0.0	21.7	61.6	16.6
	60대이상	(57)	44.2	24.1	11.9	7.9	11.9	68.3	19.8
	무응답	(2)	0.0	0.0	21.7	0.0	78.3	0.0	21.7



4. 종교 보유 의향 - (4) 현재 종교 미보유자의 믿고 싶은 종교

(Base=한국에서 종교를 믿을 의향이 있는 자, N=33%)



5. 종교에 대한 일반적 인식 - (1) 종교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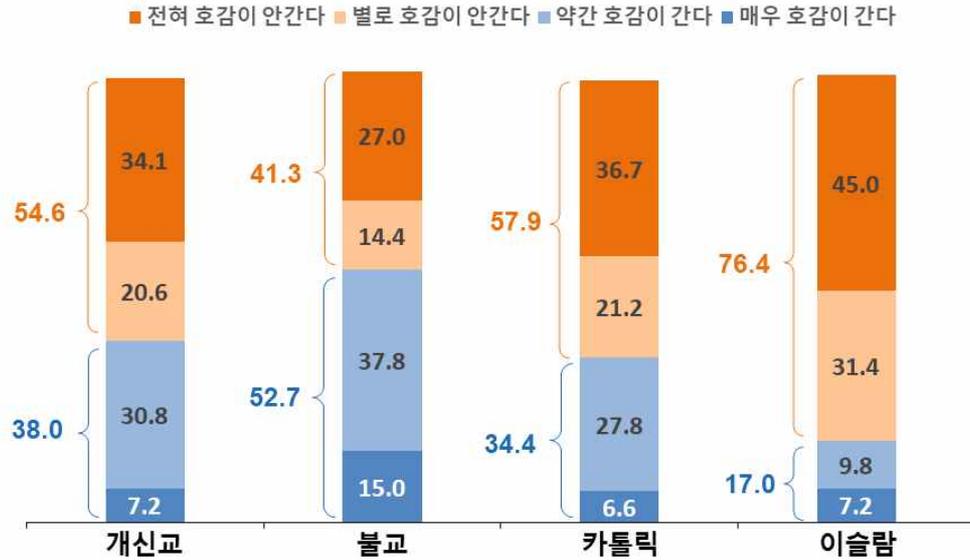
(Base=전체, N=455, %)





6. 개별 종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1) 종교별 호감도

(Base=전체, N=4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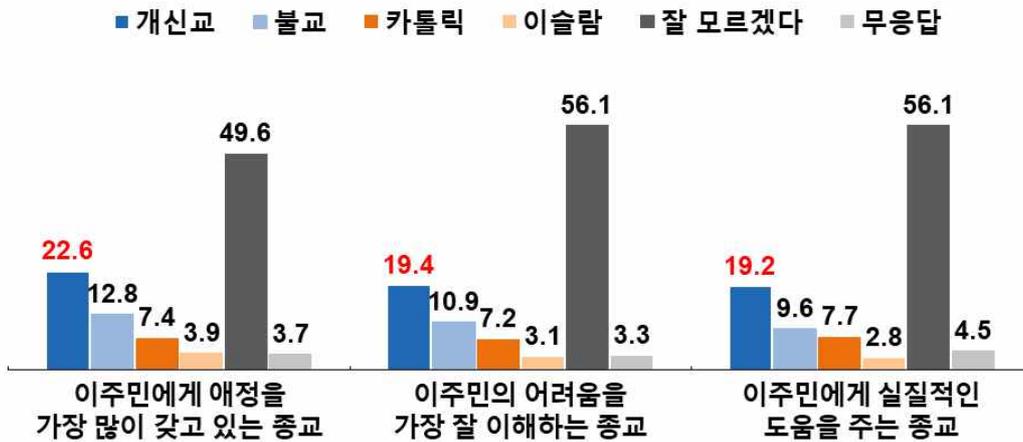
2022년 이주민 종교 인식 및 종교 생활 조사

- 28 -



6. 개별 종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2) 종교별 이주민에 대한 태도

(Base=전체, N=4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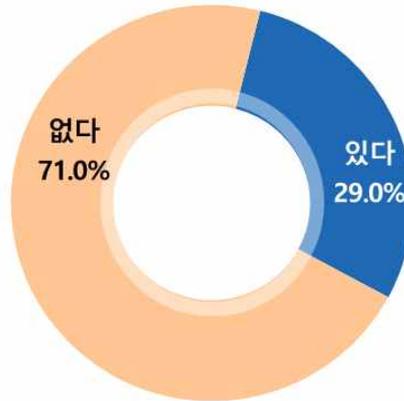
2022년 이주민 종교 인식 및 종교 생활 조사

-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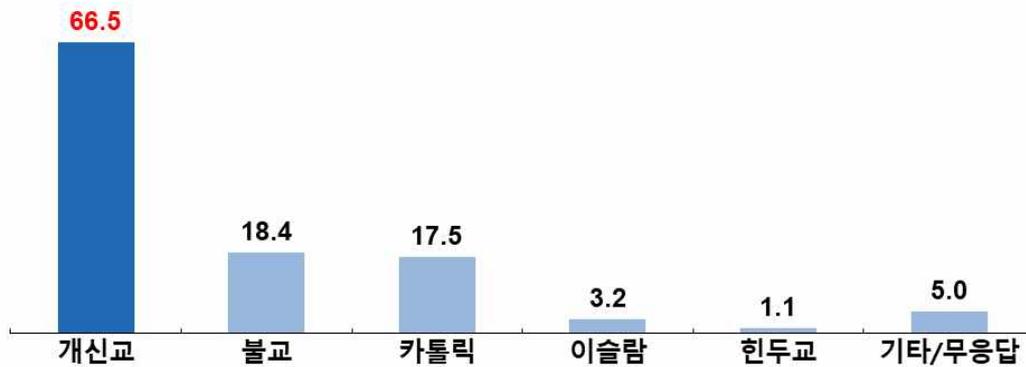
6. 개별 종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3) 한국에서 전도 받은 경험

(Base=전체, N=455, %)



6. 개별 종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4) 한국에서 전도 받은 종교

(Base=한국에서 전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N=1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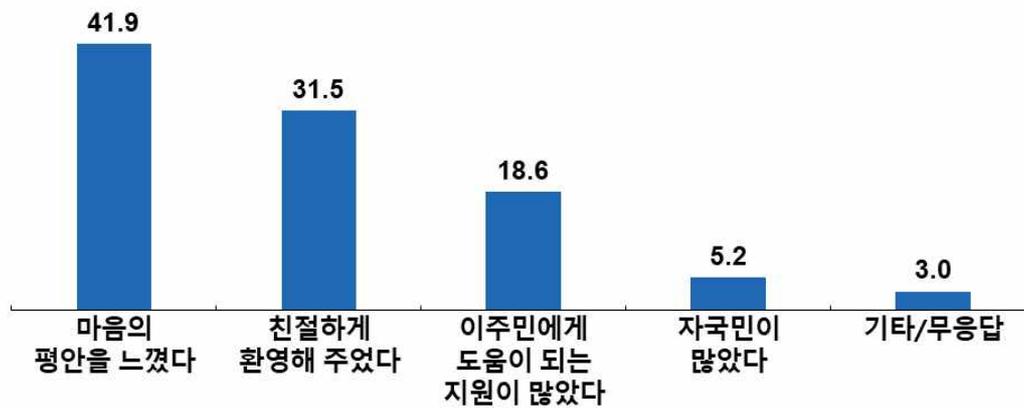
6. 개별 종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5) 종교 행사 참석 후에 생긴 호감

(Base=한국에서 종교행사를 참석한적 있는 자 N=101, %)



6. 개별 종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6) 호감이 형성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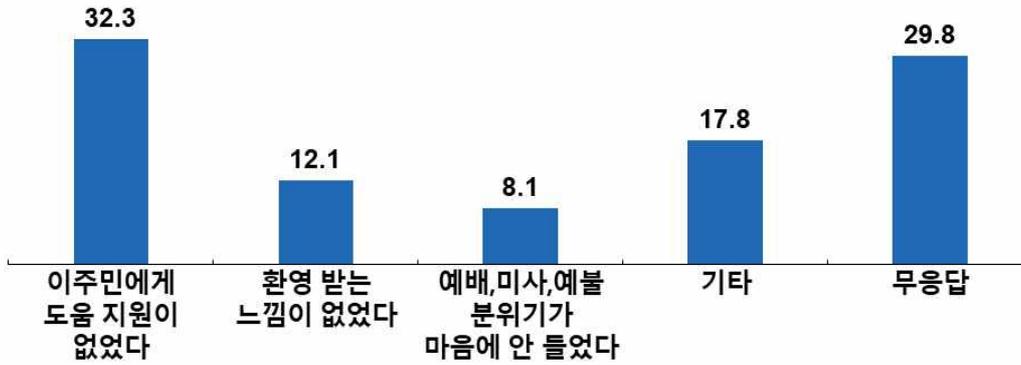
(Base=종교행사 참석 후 호감이 생긴 자 N=76, %)





6. 개별 종교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7) 호감이 형성되지 된 이유

(Base=종교행사 참석 후 호감이 생기지 않은 자, N=19, %)



3 결론 및 제언



Ⅲ. 결론 및 제언

1. 개신교 위상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슬람	힌두교	무종교
본국에서 믿는 종교	9.2	6.0	21.4	6.0	2.7	52.6
한국에서 믿는 종교	8.2	5.2	12.2	5.2	1.5	66.2
종교별 호감도	38.0	52.7	34.4	17.0	-	-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슬람	잘 모름	무응답
이주민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종교	22.6	7.4	12.8	3.9	49.6	3.7
이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종교	19.4	7.2	10.9	3.1	56.1	3.3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	19.2	7.7	9.6	2.8	56.1	4.5

→ “기독교 위상이 가장 우위에 있음”



Ⅲ. 결론 및 제언

2. 이주민 선교 전략(1)

1) 종교 시설 방문 계기

	가족의 권유/안내	이주민 권유/안내	평소 알고 있는 한국인 권유/안내
종교 시설 방문 계기	28.7%	25.4%	12.7%

2) 종교행사 참석 후 생긴 호감도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	불교
종교행사 참석 후 생긴 호감도	87.1%	84.7%	87.1%	97.0%

→ 이주민이 이주민을!
전도한다
Come & See!



1)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

마음의 위로와 평안	구원/해탈을 위해	생활의 도움(한국어, 직장상담 등)	진리를 찾기 위해	본국 사람들과 교제
43.2%	20.4%	10.3%	9.9%	9.3%

2) 신앙생활 만족 이유

힘든 한국 생활 위로	자국민 만남	자유로운 종교 생활	종교의 가르침	가정/직장문제 도움
29.7%	21.0%	15.2%	14.3%	14.2%

2) 종교에 대해 호감이 생긴 이유

마음의 평안	친절한 환영	이주민 생활 지원	자국민이 많음	기타/무응답
41.9%	31.5%	18.6%	5.2%	3.0%

→ 종교 기관에서 심과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 필요
: 위로의 메시지, 환영과 환대

발제 2.
<다문화 사회, 이주민과 종교 다양성>

**인하대학교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학과 겸임교수,
사회학박사
오경석**

다문화 사회, 이주민과 종교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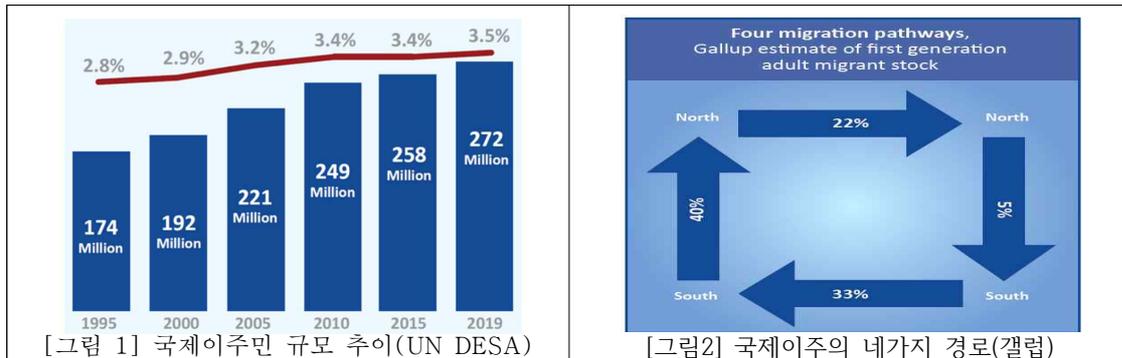
오경석 (인하대학교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학과 겸임교수, 사회학박사)

1. 이주 그리고 다문화 사회

20세기 후반부를 ‘이주의 시대’라 평가합니다. 전지구적으로 이주가 필요하고, 불가피하며, 바람직한 상황이 되었음을 일컫는 호명입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누구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국내든 국경을 넘던 이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이주민”입니다. 국제 이주자가 3억 가량이고, 국내 이주자는 7억 가량입니다. ‘전세계 인구 7명 가운데 1명은 이주민’이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1)

21세기, 이주는 이제 ‘메가트렌드’로 진화합니다. 접경 국가 간 혹은 특정 지역 간으로 제한되었던 이주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됩니다.(그림2)



이주가 메가트렌드화함에 따라 이주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가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전환됩니다. 유엔은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이주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SDGs는 출신국, 통과국, 수용국 사회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발전에 이민자들의 기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2018년 전세계 164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가 채택됩니다. 이주글로벌컴팩트는 ‘사람중심의 원칙’, ‘인권적 원칙’, ‘성인지적 원칙’, ‘아동친화적 원칙’, ‘범정부 및 범사회적 원칙’ 등을 통해 “이주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 주기의 단계에 걸쳐 이주자와 그들 가족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2019)

이주의 전지구화와 더불어 등장한 개념이자 현상은, ‘다문화 사회’ 곧 사회의 다원주의화

입니다. 다문화 사회 담론을 통해 ‘다양성’과 ‘문화’라는 개념이 주류화됩니다.

21세기가 비롯되는 바로 그 시점에 유엔의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선언’을 통해 “각 집단과 사회의 독특함 속에서 구현되는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을 강조합니다.(유네스코 2001)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습득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률, 풍습, 습관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행위 양식”(타일러 2018)을 지칭하는 문화의 위상이 ‘교류, 혁신, 창조’의 원천으로 급부상하게 된 셈입니다.

문화와 다양성이 갖는 ‘창조의 역량’이 강조됨에 따라, ‘다문화 사회’의 개념 역시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다문화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정치적 신념, 하위(소수) 문화, 지역 문화 등 삶의 각 영역에서 다원성이 혼재하는 사회”입니다.(Parekh 2006)

이와 같은 정태적인 다문화 사회 개념은, 문화다양성의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역능이 강조됨에 따라 ‘상호문화 사회’ 개념으로 전화합니다.

상호문화 사회란 “다양한 문화, 국적, 민족, 종교집단이 같은 영토 내에 살면서 자기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며 개방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상호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기반으로 개방적인 통합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규범은 ‘다양성, 평등성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압축됩니다.(송창식 2021)

이주의 보편화와 그에 연동된 사회의 다원주의화, 곧 다문화 혹은 상호문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문화가 ‘삶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지가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의 폭을 확장시킴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위험은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한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반면에, 낯설고 새로운 존재들 그리고 그들의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들 사이에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교류와 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다양성은 단일문화 사회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보다 심각한 갈등과 분쟁, 서로를 향한 혐오와 폭력의 촉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의 이주민 지형

한국은 ‘후발 이민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민 송출국가에서 유입국가로 변화한 것은 불과 30년 전입니다. 변화의 계기는 1990년대 경제 및 외환 위기였다는 점에서 내재적이라기보다는 외재적이었고,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사회에 적절한 이민의 성격, 방식, 내용 등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 혹은 사회적 대화의 장이 채 형성될 틈도 없이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다문화주의’라는 담론이 제도화되고 주류화된 셈입니다.

이민 유입국가가 된 이래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혹은 외국인 주민)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행안부가 집계하는 2021년 11월 현재 외국인 주민(90일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 외국인)의 규모는 213만명에 달합니다. 15년간 4배 이상 증가된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를 상회하는 규모이며 거의 대구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림3)

외국인 주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 다음은 외국국적 동포(이분들도 대부분은 노동에 종사하십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이민자, 유학생의 순입니다.(그림4)



기타 외국인 가운데 주목할 대상은 ‘미등록 체류자’와 ‘난민’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 가운데 가장 취약한 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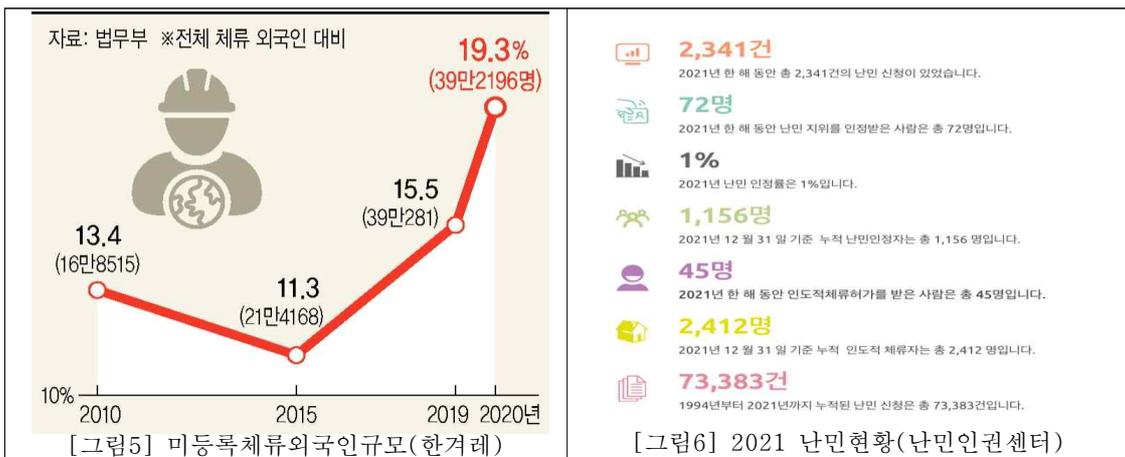
미등록 체류자는 체류기간이 초과되거나 자격 이외의 활동을 한 자 혹은 출입국관리법위반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로부터도 공식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비롯한 다중적인 위험과 위협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규모는 무려 40만에 육박합니다.(그림5)

더욱 주목할 것은 소위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알려져 있는 미등록 아동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실질적인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아이들의 규모 역시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오경석 외 2019)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난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단)입니다.

‘국가들의 세계’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사유가 ‘공포’라는 점에서, 이들은, 작금의 세계 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취약한 이유는 돌아갈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안전하고 충분하게 소속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1994년부터 작년까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7만 3천명을 상회합니다. 그 가운데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1천 1백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난민인정률이 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는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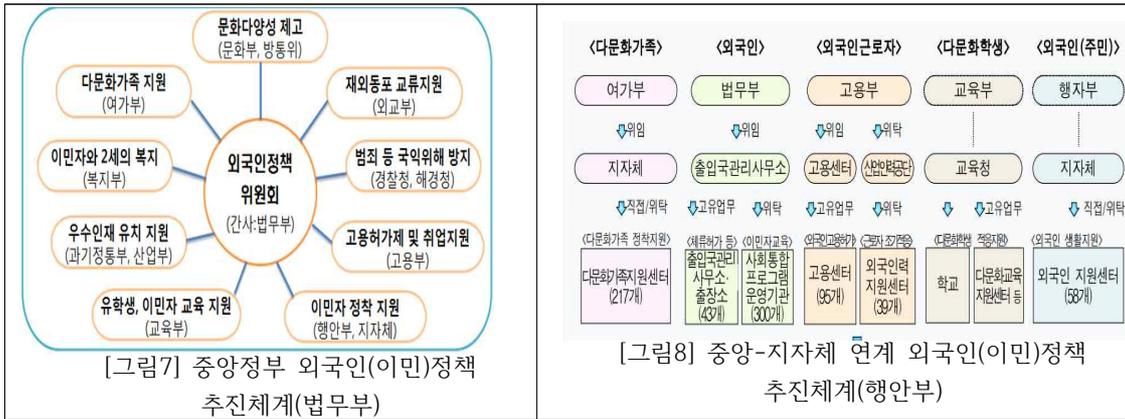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주민의 출신국과 문화, 언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면 전세계 모든 국가 출신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2년 안산시에만 전세계 108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의 순입니다.(행안부2022)(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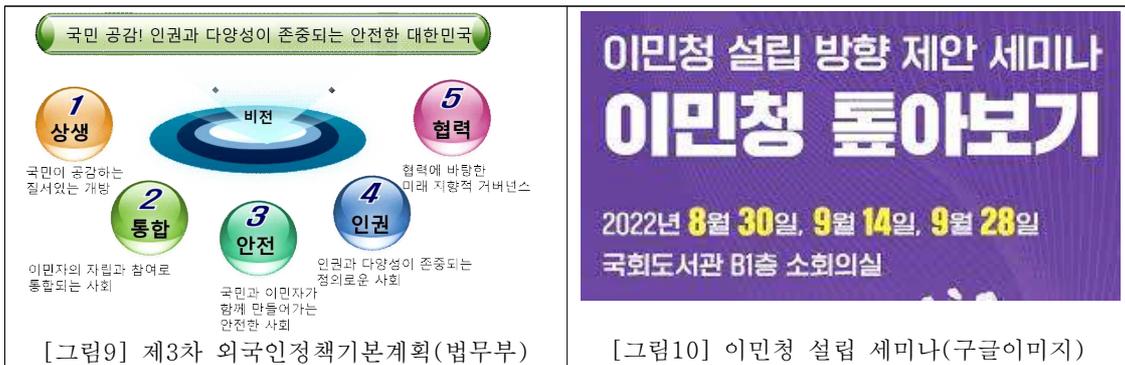
<표1> 주요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

중국 (한국계)	베트남	중국	태국	우즈베키 스탄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523,073명 31.7%	200,265명 12.1%	193,073명 11.7%	158,567명 9.6%	59,898명 3.6%	57,815명 3.5%	40,870명 2.5%	40,415명 2.4%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의 합의 부재, 정주화 방지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매우 능동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그림7)(그림8)



정부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외국인 및 다문화 행정 드라이브는 최근 ‘이민청’ 신설 논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더 이상, 이 땅의 외국인들을 잠깐 방문했다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참여와 기여, 책무와 의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그림9)(그림10)



후발 이민국가인 대한민국의 이민, 외국인 관련 제도와 정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합법적인 이주민들조차도 여전히 주변인이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이거나, 보여서는 안되는 존재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제도와 현실, 담론과 실질적인 인식 사이의 심각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3. 이주민과 종교 다양성

외국인 주민(곧 외국인, 이주민 혹은 준이주민)의 증가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수반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와 소속감, 기여와 책무의 기회를 공유하는 다문화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일문화적이고 동질성이 지배적이었던 사회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제도와 규범, 관행과 문화가 요청됩니다.

사회구성원들의 독특하고 상이한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기반하에서만, 다문화 혹은 상호문화적인 새로운 사회공동체는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문화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상호 이해와 존중이 어려운 분야가 바로 종교입니다.

이주민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믿음 그 이상을 뜻합니다. 이주민들에게 종교는 “정체성 유지, 종족적 연대, 체류국 사회 적응의 완충제이자 디딤돌”(임정수 2016)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최후의 보루이자 효과적인 적응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와 본원적인 “소외와 혼동에 직면한 이주민들에게 윤리적 토대와 미래의 전망을 제시”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엄한진 2010)

이처럼 종교는 ‘제도적 문화적 타자’로서 체류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트라우마적이며 스트레스 상황’의 이민자들에게 문화적, 심리적, 윤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에 실질적이며 유일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민자들의 종교는 ‘갈등과 분쟁’의 가장 주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들과 함께 유입된 종교가, 체류국 사회의 종교 지형을 다원화하고, 복잡하게 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주민들로 인해 한국 사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슬람, 그리스(러시아) 정교, 라마불교, 힌두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들이 유입됩니다. 이들 새로운 종교 집단과 기성 종교인들 사이의 갈등은, 종교에 이중 멤버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중멤버십이 가능한) 언어, 문화, 출신 국적에 따른 갈등에 비해 조정의 가능성은 매우 약화되고 반면에 증폭될 개연성은 높아집니다.(임정수 2016)

이와 관련 특히 한국 사회의 고유한 종교 감수성 및 규범과, 이주민들의 종교 감수성 및 규범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 역시 주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개종의 자유)가 법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입니다.(임정수 2016) 곧 실질적으로 전세계 거의

유일한 ‘종교다원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이, 어느 종교도 주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다원적으로 분포하는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평가받습니다.(임정수 2016)

다른 나라들의 대부분은 종교가 ‘자원적인 선택지가 거의 없는’ 법적이거나, 관습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정체성의 코어’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들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주도(혹은 주류) 종교가 존재하고, 기타의 종교를 가진 자들은, 그와 같은 주류 집단에 소속될 수 없는, 주변인의 위상을 (때로는 사회적으로 파문당하는 정도의 혹독한 비용 지불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그림11)



종교에 대한 충성심과 자유의 정도가 상이한 집단 사이에, 더군다나 낯선 종교적 믿음을 갖는 경우, 게다가 주류 사회의 선주민이 아닌 이주민이 그 당사자라면, 갈등을 넘어, 차별과 박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임정수 2016, 엄한진 2010)

이민자 유입의 역사가 짧고, 종교에 대해 유례없이 관대한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이주민들로 인한 종교적 갈등과 분쟁이 심각하게 분출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종교에 대한 관용과는 달리 한국 사회는 타문화에 대해서는 매우 완고하고 수용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한국사회에 낯선 그들의 종교에 대한 거부감과 결합하는 경우, 매우 심각하고 폭력적인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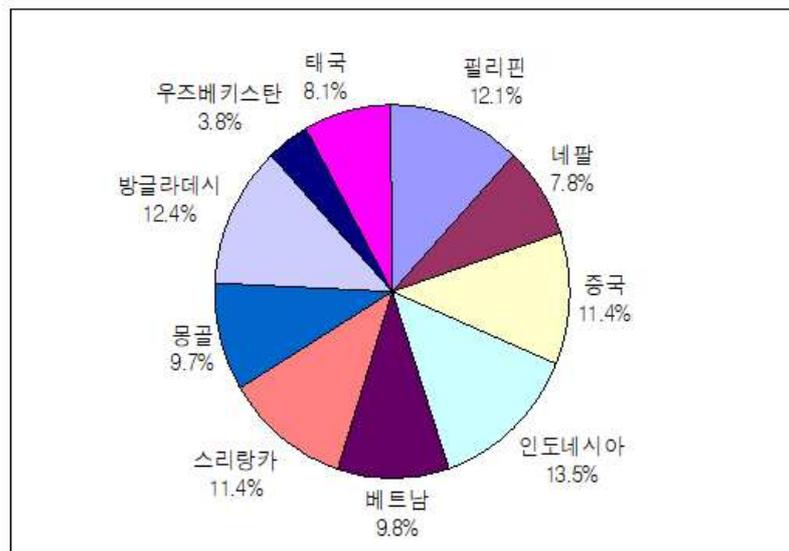
4. 이주민 공동체와 종교(오경석 외 2007)

저는 2007년 동료들과 함께 당시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 다문화지도제작”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07년은 한국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외국인 정책의 기조이자 키워드로 공식화한 거의 원년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연구자로 수행한 ‘다문화지도제작’은 당시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 지형도’를 제작하여, 문화적 다름이, 갈등과 분열의 기제가 아니라, 평화와 융합의 기제로 선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주로 경기도에 체류하는 아시아 10개국 출신 703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그리고 참여 관찰 및 현지 조사(베트남과 필리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당시 연구 가운데, 종교 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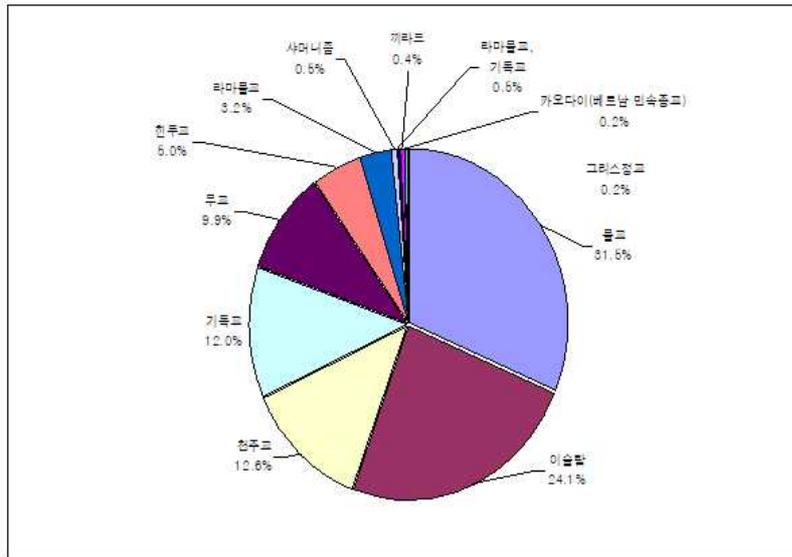
조사 참여자들의 출신국별 분포는 인도네시아가 95명(13.5%), 방글라데시 87명(12.4%), 필리핀 85명(12.1%), 중국 80명(11.4%), 스리랑카 80명(11.4%), 베트남 69명(9.8%), 몽골 68명(9.7%), 태국 57명(8.1%), 그리고 네팔 55명(7.8%)의 순이었습니다.(이번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안산 조사에는 포함된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대신 당시 우리 조사에는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개국은 동일합니다.)(그림 12)



[그림 12] 2007 이주민의 문화다양성 조사 참여자의 국적별 분포

무응답(19.3%)과 무교(8.3%)를 제외하는 경우, 조사 참여자들의 72%가량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교’만을 명시적인 무종교로 간주한다면, 응답자들의 90% 가량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셈입니다.

무교를 제외하면 조사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12개의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교(24.1%), 천주교(12.6%), 기독교(12.0%) 등의 순이었습니다.(그림13)



[그림13] 이주민의 문화다양성 조사 참여자의 종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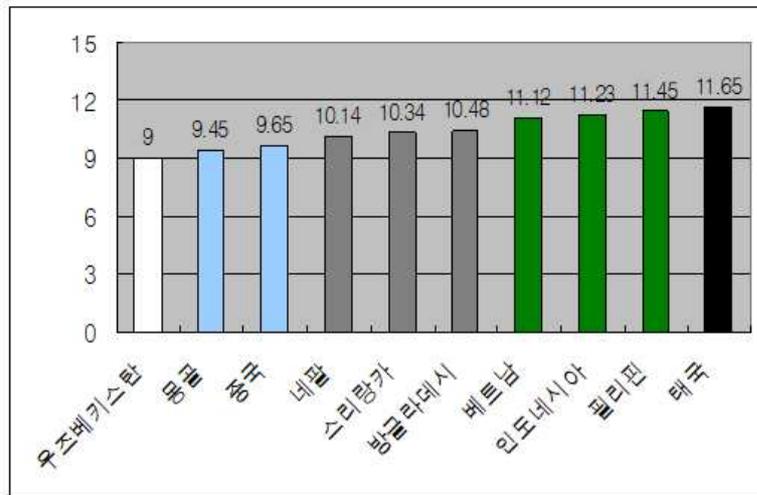
출신국가별로 주요 종교의 분포는 상이했습니다. 필리핀은 천주교가, 네팔은 불교와 힌두교가, 중국은 무응답과 무교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베트남은 무응답과 무교가, 스리랑카는 불교가, 몽골은 라마불교가,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이 그리고 태국은 불교가 다수 종교로 나타났습니다.(표2)

<표2> 2007 이주민의 문화다양성 조사 참여자의 국적별 종교 분포

		국가										전체
		필리핀	네팔	중국	인니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크	태국	
종교	무응답, 무효	9(10.6)	3(5.5)	52(65.0)	3(3.2)	25(36.2)	2(2.5)	12(17.6)	15(20.8)	3(11.1)	9(15.8)	133(19.3)
	그리스정교									1(3.7)		1(0.1)
	기독교	5(5.9)	3(5.5)	6(7.5)	32(33.7)	13(18.8)		9(13.2)	1(1.4)			69(10.0)
	끼다르		2(3.6)									2(0.3)
	라마불교							32(47.1)				32(4.7)
	라마불교, 기독교							6(8.8)				6(0.9)
	무교		1(1.8)	21(26.3)		26(37.7)		6(8.8)		3(11.1)		57(8.3)
	민속종교					1(1.4)						1(0.1)
	불교		19(34.5)	1(1.3)		3(4.3)	75(93.8)				48(84.2)	146(21.2)
	샤머니즘							3(4.4)				3(0.4)
	이슬람				59(62.1)		2(2.5)		55(76.4)	20(74.1)		136(19.8)
	천주교	71(83.5)				1(1.4)	1(1.3)					73(10.6)
	힌두교		27(49.1)		1(1.1)				1(1.4)			29(4.2)
	전체		85(100)	55(100)	80(100)	95(100)	69(100)	80(100)	68(100)	72(100)	27(100)	57(100)

국가 집단별 종교생활 평균점수에 대해 다중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별 평균점수의 차이는 최소 9점에서 최대 11.65점으로 2.65점 차이가 났고, 이를 근거로 5개 그룹으로 구분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생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태국 출신 이주민들이었으며 우즈베키스탄 출신 응답자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평균점수 11점대로 유사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다음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네팔이 평균점수 10점대로 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과 몽골이 평균점수 9점대로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그림 14)



[그림14] 2007 이주민의 문화다양성 조사 참여자의 국가별 종교 생활 점수

종교는 출신국 공동체 및 다국적 공동체 모두에서, 주요한 갈등의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주민 공동체 내부에서 종교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출신국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신지역의 차이(34.0%)였고, 종교는 그 다음의 요인으로 20.2%가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들인 민족(8%)이나 신분(7.3%)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높은 비율로 종교가 출신국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출신국 공동체 내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종교를 가장 많이 지적한 국가는 필리핀(34.4%)과 인도네시아(31.3%)였습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역,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 등은 심각한 종교간 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와 같은 종교간 분쟁으로 인한 고통의 경험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됩니다.

다국적 공동체 내 갈등의 원인 중 종교는 지역을 제치고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국적 공동체 내 갈등의 요인은 종교(27%), 출신지역(19%), 언어(17%) 그리고 민족(12%)의 순이었습니다. 국적과 언어, 출신지역에 비해 각 종교별 유대감과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5. 2022 이주민의 종교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목회데이터연구소 2022)

2022년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수행한 “2022 이주민의 종교의식 및 종교 생활 조사”는 우리 나라 최고의 이주민 밀집 지역이자 이주 행정 선도지자체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으며, 최근 상호문화도시 ‘good practice’로 선정된 안산 지역 이주민들의 종교심과 종교 활동 실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조사 분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 메가트렌드로서 이주는 이제 전지구적으로 비가역적인 현상으로 전 지구인의 보편의 경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다원주의화(다문화사회 혹은 상호문화사회) 역시, 막을 수 없는 전지구적인 경향이 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의 키워드는 문화와 다양성입니다. 문화다양성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종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종교는 문화에게 ‘의미 공급자’가 되고 문화는 종교에 ‘의미 수여자’가 된다는 점에서 종교와 문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적인 가치가 됩니다.(김명희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담론이 단기간에 주류화된 한국 사회에서 종교 분야의 연구는 늦게 시작되기도 하였고,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2000년대 중반부터 붓물처럼 이루어졌으나, “다문화와 종교를 연결한 논의는 2009년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박종수 2018)

그런 면에서 이번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이주민의 종교 실태 조사’의 기여는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계는 물론이요, 이제 실질적인 다원주의 사회를 (이민청 논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과 정부관계자 그리고 의식있는 시민들 모두에게 ‘다양성이 공존하는 포용적인 사회’(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실질적인 준거 자료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낀 이번 조사의 의미있는 시사점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주민 공동체의 종교적 다양성과 충성심이 재확인된 점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개신교, 카톨릭, 불교 등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종교들 이외에도 이슬람, 힌두교, 러시아 정교 등 한국 사회에 비교적 낯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주민들로 인해 한국사회의 종교 지형이 훨씬 다원화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주민들이 주로 모이는 안산시 원곡동에는, 매우 좁은 공간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예배당들이 모여있습니다.

더불어 이주민들의 종교적 충성심이 매우 강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주민들 가운데 개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0.4%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종교적 갈등의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민들의 종교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종교가 없다고 답한 경우가 무려 66.2%에 달했습니다. 출신국에서조차 종교가 없었다는 응답이 무려 52.6%에 달했습니다.

이는 시간적인 거리와 표본의 상이함이 존재하긴 하지만 2007년 제 연구하고도 매우 비교되는 결과입니다. 당시에 무응답을 제외하고 무교라고 명시적으로 응답한 이주민의 비율은 8%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출신국과 체류국인 한국 사회 모두에서 종교없음이 압도적이고, 상대적으로 출신국에 비해 한국에서 종교가 없어지는 비율이 좀 더 증가했다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주민들의 세속화 가설입니다. 중국 등 구사회주의 국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주민들의 출신국 대부분은 종교가 문화화, 일상화 심지어 법률화되어 있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인 우리 나라보다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종교의 구속력이 월등한 사회들입니다.

그런 이들의 다수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는 것은, 이주의 경험이 그들을 ‘세속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에 조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만큼,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체류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종교의 도덕적, 문화적 구속력이 희박해진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세속화 테제에 반해서, 이주민들에게 종교는 본국에서 보다 더욱 중요하고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주류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의 보상으로 종교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엄한진 2010)

이주민의 종교 강화 테제에 근거하는 경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이주민의 낮은 종교율은, 이주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성 종교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거나, 이주민들에게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자체가 주변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좀 더 우려스러운 추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시사점은 종교 생활의 유익과 관계됩니다. 이는 두 번째 시사점과도 맥이 닿습니다. 한국에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이주민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43.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주를 항상적인 트라우마 혹은 스트레스와 연동된 행위로 규정하는 학계의 관점을 방증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민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이 절대적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종교가 줄 수 있는 유익 가운데 낮게 평가한 항목은 ‘종교가 힘든 한국 생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준다’ 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종교 시설이 이주민의 가장 절박한 욕구인 심리적 지원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일에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종교 시설 안에서 오히려 언어적, 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 시설이, 이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에 미흡하다는 점은, 종교시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 목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응답자의 무려 61.7%가 ‘자국민 사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노무 상담이나 언어 교육 등은 자국민 사권의 1/3 수준이었습니다.

넷째, 개신교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이주민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종교’, ‘이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종교’,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 항목에서 모두 일순위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개신교가 그간 이주민의 인권 옹호 활동, 제도 개선 활동, 사회통합 및 이주아동 보육 지원 활동, 이주민 교육 활동 등에서 선구적이고, 꾸준하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기여를 해 온 것에 대한 정당한 응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활동의 역량, 그리고 이주민 대중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조금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교회의 역할이 모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이주민을 위한 교회의 역할도, 매우 단순해보이지만,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응답자들의 다수는 종교 행사에 가서 호감이 생긴 이유로 ‘마음의 평안과 친절한 환영’을 압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주민 공동체를 향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연구진이 제시한 바와 같이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로 공손하고 친절하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실질적인 적응 지원은 그 다음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경계를 넘는 사랑과 평화의 허브로서 교회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입니다. 인간과 이주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주와 종교 역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주 자체를 “종교화된 경험(theologizing experience)”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엄한진 2010) 그런 면에서 “이주하는 인간(Homo Migrans)은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기도 합니다.(박종수 2018)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후발) 이민 국가입니다. 이주는 우리에게도 회피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경험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종교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주의 시대, 교회는 새로운 도전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차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짧은 생각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주민을 대상화하거나 타자화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민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지역민이요, 가정의 구성원이요, 고유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며, 연약한 인간이요, 동역자요, 신실한 교인입니다.(정봉현 2017)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그와 연동된 반감이나 거부감에 대한 성찰이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행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음식, 의상, 예술, 드라마, 공예, 댄스, 문학, 기념일”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 사적 공간의 범위, 얼굴 표정, 비언어적 의사소통, 몸짓언어, 신체 접촉의 규범, 미의 개념, 동물과의 관계, 이상적인 자녀 양육, 질병에 대한 인식, 연장자에 대한 태도, 위생 관념, 집단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호도, 이상 행동의 정의” 등도 다르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애써야 합니다. 그에 대한 몰이해나 오해는 이주민과의 우호적이고 합리적인 소통과 교류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임정수 2016)

그런 전제하에 교회는 가장 취약한 이주민들에게 울타리요, 집이요, 피난처요, 쉼터요, 휴양지 같은 곳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도움’ 혹은 ‘적응 지원’보다 선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취약한 이주민 가운데 한 부류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자신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사회적 공간과 소속이 없는 난민들입니다. 사회적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비가시적인 미등록 체류자들과 (특히) 그들의 자녀들 역시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머물 곳도 없는 그들에게, 교회는 마음의 위안과 쉼, 소속감과 유대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 관련, 교회는 꾸준히 사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언어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관리해줄 수 있는 다언어 심리상담가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자유로운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와 감수성, 곧 ‘문화적 귀’를 가진 전도자가 양육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와 다화의 시대, 종교가 다시 한 번 그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시대, 교회는 단순한 선교를 넘어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변화시켜 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과제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적 차이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른 종교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관용과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님의 창조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로 인한 일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한국일 2011)

<참고 문헌>

- 김명희. 2020. 현대독일사회와 종교의 관계유형 고찰 - 불교와 불교이주인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80집 1호. 한국종교학회.
- 박종수. 2018. 한국 다문화정책과 종교. 宗教文化學報 제15집. 한국종교문화학회.
- 송창식. 2021.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대응전략 :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안산환경재단.
- 엄한진. 2010. 한국사회 이주민 종교공동체의 실태와 성격. 종교문화연구 제14호. 한신대학교종교와문화 연구소.
-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 2018. 유기쁨 번역. 원시문화. 아카넷.
- 오경석 외. 2007.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 다문화지도제작. 문화관광부.
- 오경석 외. 2019. 2019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임정수. 2016. 한국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의 심화와 다문화 시민교육의 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2016 제6권 2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정봉현. 2017.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宗教文化學報 제14집. 한국종교문화학회.
- 한국일. 2011. 이주민 선교를 위한 종교와 문화의 이해. 선교와 신학 27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 Parekh Bhikhu.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Harvard.

발제 3.
**<안산제일교회 이주민 사역과
선교에 대한 사례 발표>**

**안산제일교회 선교위원회 담당
한지훈 목사**

안산제일교회 이주민 사역과 역파송 선교에 대한 사례 발표

오상원(안산제일교회/국제사역위원회)

한지훈(안산제일교회/선교위원회)

I. 안산제일교회 이주민 사역

1. 안산제일교회 국제사역위원회 이주민 사역 시작 및 역사

- 2003년 8월 러시아어예배부 시작
- 2003년 12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
- 2003년 9월 중국어예배부 시작
- 2004년 7월 러시아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시작 (매년 여름 진행)
- 2005년 2월 영어예배부·네팔어예배부 시작
- 2005년 9월 외국인선교위원회 발표대회
- 2005년 11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바자회
- 2006년 9월 안산제일미션센터 개관(외국인부)
- 2011년 9월 “통해야”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섬김과 나눔축제
- 2012년 10월 제일다문화센터 개소(원곡동 784-13)
- 2013년 11월 다문화어린이와 함께하는 안산시립합창단 초청연주회
- 2015년 11월 외국인선교위원회 연합체육대회
- 2019년 5월 외국인선교위원회 봄 운동회

안산제일교회는 2003년 러시아어예배부와 중국어예배부를 시작으로, 약 20년동안 안산에 있는 이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해왔다. 또한, 10년 전에는 원곡동에 제일다문화센터를 개소하여, 중국, 러시아, 네팔, 파키스탄 등 이주노동자분들의 기도처와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2. 안산제일교회 국제사역위원회 현재사역

(1) 예배 및 모임

- 주일 통역 예배(낮12시) 및 주일 각 언어권 예배 (네팔어부·중국어부 오전10시, 러시아어부·영어예배부 오후2시)
- 국제사역위원회 담당 목회자 각 부서 예배 분기별 순회 설교 및 일부부서 성찬 집례
- 각부서 7월말~8월초 사이에 1박 2일이나 무박 2일로 여름수련회 진행, 일부 부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8/13-15)

- 분기별 야외예배 및 친교 모임 진행(봄 야외예배, 가을 산행, 여름 래프팅, 가을 운동회, 크리스마스 친교 모임 등)

(2) 제일다문화센터 사역

- 러시아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9시에 오프라인 예배 및 기도회로 모임.
법률 및 노동문제, 의료관련문제, 임금체불, 신앙관련 상담 도움 및 연결
- 중국어부: 매주 토요일 오후 7:30 토요일예배 및 기도회,
매주 주일 새가족 교육진행 및 주일 오후 기도회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2:30 성경공부모임 진행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수요일오후예배
- 영예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Zoom을 통한 성경읽기 나눔
매주 주일 오후 4시 영어예배부 성도 성경공부
매주 수요일 오후 11:30(영어권 성도 온라인 제자양육 교육)
매월 1회 파키스탄 현지인과 Zoom을 통한 예배(월1회)
- 네팔어부: 매주 토요일 오후 찬양팀 및 리더쉽 예배 준비 및 중보기도회(저녁9시)
매월 첫주 토요일 Zoom을 통한 전체성도 친교 모임(코로나때 20명 참석)

(3) 한양대 중국 유학생 전도

- 2022년 한양대 인근 국제한양교회 정명광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중국 유학생 전도 및 한국어 교육 지원
- 주 2회 한국어 교육에 안산제일교회 국제사역 스태프분들 도우미로 참여(1-3명)
- 중국 유학생 여름수련회 및 세레 수련회 진행하는데 재정 지원, 향후 차량지원과 봉사 인력 지원 계획

3.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

(1) 국제사역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교회 온라인팀과 협력하여 국제사역위원회 예배와 소그룹 영상 및 교육자료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각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고 전도와 선교까지 연결시키고자 함.
- 각 나라 현지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Zoom, 위챗)을 통한 지속적인 예배와 소그룹 정착(중국, 러시아, 네팔, 파키스탄 등등)



(2) 각 부서 온라인 사역 및 소그룹 사역

● 중국어부

① 한국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중국에 돌아가 있는 성도 6명으로 구성되어 위챗에서 진행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11시 성경공부(성경을 3-4장 읽고 나눔을 진행)

- 매주 화요일 아침 9시-11시 영성일기 나눔방(일주일

동안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의 영성일기를 쓰고 위챗에 올려서 서로 나눔)

② Zoom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에 있는 목회자 300명 정도가 참여하여 목회 방향을 연구하고 나눔을 진행(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Zoom으로 모임)

- 중국의 목회 현황과 한국에 있는 중국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상황들을 공유함

- 각자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운 점과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서로 배우고 연구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도

- 중국으로 귀국한 성도들이 중국 교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나누고 도와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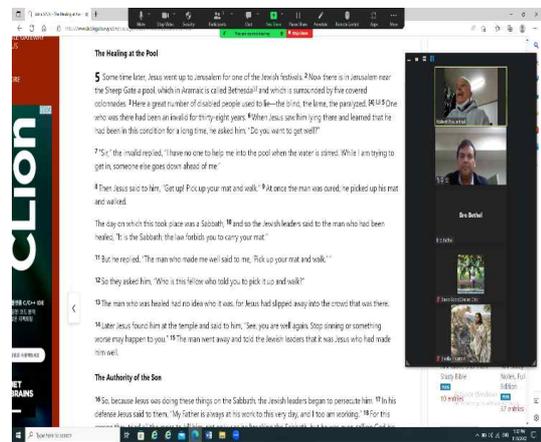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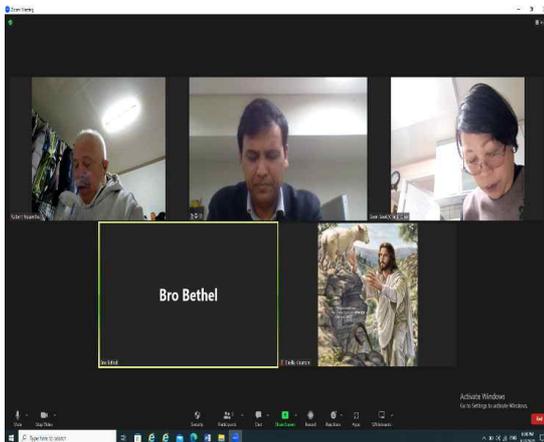
<현재 중국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 영어예배부

- ① 영어예배부 성도 성경공부 모임(제자훈련 위한 성경강의, 교회 사역 위한 기도) 주일 오후 4시~5시에 오프라인으로 모임



- ② Zoom을 통한 성경읽기 나눔(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각 개인의 삶을 나눔. 교회를 위한 기도회 진행.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③ 원곡동 다문화 거리 노방전도(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약 10명참여)



- ④ 매주 수요일 오후 11:30(영어권 성도들 온라인 제자양육 교육)

● 러시아어예배부

- ① 매주 수요일 오후9시 수요예배 및 소그룹모임(원곡동 다문화센터 2층)
- 찬양, 기도, 성경 말씀 나눔, 식탁교제
- ② 매주 금요일 오후9시 러시아부 자체 금요철야예배 및 친교나눔
- ③ 매주 주일 오후5시~7시 안산제일교회 성도&비성도 한글공부 기초반/중급반 진행

II. 이주민 사역의 열매, 역파송 선교 사례

안산제일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는 교회”라는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안산제일교회가 위치한 안산은 80년대 초 반월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¹⁾ 산업연수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안산에도 많이 유입되었는데, 교회는 안산에 ‘거류하는’(레 16:29)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사는 교회”라는 교회의 사명이 기초하고 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9)는 말씀과 같이, 성서는 나그네였던 우리들이 나그네와 같은 이주민들을 사랑하며, 포용할 것을 요청한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향해 팔을 뻗으신 예수님과 같이, 안산제일교회는 안산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포용하였다. 이러한 마음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안산제일교회의 이주민 사역은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교회는 이주민들에게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공유하며, 복음에 낯선 이들에게 “날마다 천국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주민들을 향한 교회의 환대와 포용은 본능적으로 ‘낯선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²⁾ 도시의 영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고 있다.

안산제일교회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했다. 김기문 장로의 은퇴를 기념한 봉헌으로 네팔 루부 지역에 아쉬러여 교회(Lubhoo Aashraya Church) 건축을 지원하고, 지난 9월 네팔을 방문하여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다. 방문 당시 안산제일교회 네팔 예배부에서 함께 했던 네팔의 자매·형제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에서 온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하루 꼬박 달려오신 분도 있었다.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안

1) 구분규,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비교문화연구』 제19집 2호(2013), 15.

2) David Eagleman, *The Brain: The Story of You*, 전대호 역, 『더 브레인: 삶에서 뇌는 얼마나 중요한가?』 (서울: 북하우스 2017), 213-21. Eagleman에 따르면, 인간은 아주 적은 정보만으로도 대상을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으로 나누며, 외집단의 일원을 볼 때 공감 반응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산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네팔에서 나그네 된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 것이다. 그 만남을 통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산의 성도들을 사랑의 백성으로 빛으실 뿐만 아니라,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씨앗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안산에서 네팔로 되돌아온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민 사역이 어떤 선교적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 준공감사예배



- 홈커밍데이

1. 아모스 목사(Amos Gurung)

아모스 목사는 안산제일교회 네팔 예배부 초대 목회자이다. 아모스 목사는 한국이 아닌 네팔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1990년 아모스 목사의 아버지의 회심으로, 그 가정과 그의 마을 굶다에 복음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전도로 ‘굶다교회’가 세워졌으며, 아모스 목사는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굶다교회’는 1996년에 발발한 ‘네팔 내전’으로 인해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고, 예배당은 파괴되었다.³⁾ 그런 중 고 이춘심 선교사의 추천으로 햇볼트리니티에 입학하여 M.div와 Th.M을 졸업하고, 2005년부터 안산제일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다. 안산에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는 네팔의 형제들과 함께 시작한 네팔 예배부는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네팔의 디아스포라를 섬기며, 안산제일교회 네팔 선교의 수원지가 되고 있다. 안산제일교회에서 목회자로 처음 사역했던 아모스 목사는 한국인 목회자들과 동역하며 “목회, 교회행정, 양육 등 지금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안산제일교회 ‘1호 네팔 선교사’로 파송된 아모스 목사는 네팔 ‘Bible College’ 학장으로 섬겼고, 2012년부터 ‘UVN’(United Vision Nepal)이라는 NGO 단체를 세워 교회개척책임자로 섬기며 현재까지 200여개의 교회를 개척했다.⁴⁾ 또한 ‘Jesus Assembly Church’에서 담임 목회를 하며 ‘Prayer for Nepal Movement’⁵⁾ 네팔책임자로 기도운동사역을 하고 있다.

3)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굶다교회는 현재 400여명의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4) UVN의 교회개척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①구제·구호-②보건·위생 교육- ③회심자 발굴-④사역 훈련-⑤셀 교회개척-⑥구제 및 교육훈련 지원-⑦교회 성장-⑧UVN 지역 책임자로 협력

5) 네팔의 1,000개 이상의 교회가 40일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 안산제일교회 사역 당시



- Nepal Bible College



- UVN 사역



- 기도운동사역

2. 수먼 목사(SUMAN GAUTAM)

수먼 목사는 1991년 이주노동자로 입국하여 가구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1993년 평촌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때 '네팔에서 사역하라'는 내적 확신을 가졌다. 이후 2003년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며 한국에 다시 입국했고, 2009년에 대학원까지의 공부를 마쳤다. 2009년부터 안산제일교회 네팔 예배부에서 사역을 시작한 수먼 목사는 예배부의 양적 성장을 경험하며, 목회 사역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네팔 땅을 향한 부르심을 다시금 듣게 되어, 꽃재교회의 파송을 받아 2011년 6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Worldwide Mission Church'를 개척했다. '세계선교교회'는 8개의 지교회를 개척하고 1명의 인도 선교사를 파송했다. 또한 네팔 감신대 학장과 네팔 감리회 감독으로 섬기며 네팔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안산제일교회도 2011년부터 수먼 목사를 협력 선교사로 지원하며, 네팔 선교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다.



- 세계선교교회



- 네팔 감신대

3. 구말 목사(Deu Kumar Rai)

구말 목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안산제일교회 네팔 예배부에서 사역을 했다. 사역 기간 중 네팔에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갖고, 네팔로 귀국하여 ‘NNCC’(Nepal New Covenant College)를 설립했다.

구말 목사가 섬기는 ‘Tarahara Shanti Baptist Church’는 400여명의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여, 5개의 지교회와 3곳의 선교지에 후원을 하고 있다. 구말 목사는 네팔 침례교 차기 리더로, 현재는 네팔 침례교 ‘Province 1’의 대표로 섬기고 있다.



- 안산제일교회 사역 당시



- Tarahara Shanti Baptist Church



- 지교회 준공감사예배



- 교회 어린이 캠프

4. 살루 목사(Salu Moktan)

살루 목사는 1994년 한국에 입국하여 1998년 군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2005년 취업을 위해 안산에 거주하였고, 2008년 예배 통역자를 선발하는 안산제일교회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안산제일교회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통역 사역을 하였다.⁶⁾ 통역 사역을 통해 얻은 유익을 살루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설교를 통역하면서 제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를 미리 받고, 성경을 찾아놓고, 미리 통역을 몇 번이고 연습하는 과정이 제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받았고 2013년 네팔에 귀국하여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사역하여 오고 있습니다.”

살루 목사는 2013년에 네팔로 귀국하여 ‘알파와 오메가 교회’를 개척하여 현재 9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으며, ‘여성펠로우십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안산제일교회 사역 당시



- 예배 사역

5. 쉐토스 집사(Shantosh Rai)

쉐토스 집사는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아 2014년 한국에 입국하여 반월공단에서 일을 하였다. 네팔에서도 기독교를 접했던 쉐토스는 안산제일교회 네팔 예배부에 출석하였고, 네팔 예배부 토요 모임에서 네팔음식을 나누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다. 그는 찬양팀으로 섬기며, 안산제일다문화센터 쉘터에서 서류담당의 일을 감당하며 네팔 예배부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넓혀갔다. 쉐토스 집사는 안산제일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임명받았고, 그 때의 감격을 “예배를 드리면서 리더십으로 섬기게 되면서 무척 기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라고 회고한다.⁷⁾

6) 안산제일교회 예배에는 수화 통역이 제공되며, 주일 4부 예배에는 네팔, 러시아, 영어, 중국어가 실시간 통역이 제공된다.

7) 당시 네팔 교회는 직분 임명에 엄격했으며, 직분을 임명 받는 자도 큰 부담을 가졌다. 왜냐하면 네팔 교회의

2019년 귀국한 썬토스 형제는 고향인 룡루파로 돌아가, 그곳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말씀을 전하며 찬양팀을 섬기고 있다. 지금은 NNCC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룡루파침례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썬토스 집사는 이런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저에게 안산제일교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따뜻미지근하던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에 불을 붙여준 곳입니다. 안산제일교회와 네팔어예배부와 저를 안산제일교회로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안산제일교회 사역 당시



- 룡루파 침례교회

6. 어제이 형제(Ajay Ghatane)

어제이 형제의 삼촌은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사역을 시작한 목회자이다. 그는 삼촌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며, 교회의 유스찬양팀리더로 섬기다가 2011년 이주노동자로 안산에 오게 되었다. 먼저 한국에 입국한 친구가 안산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안산으로 이주한 어제이 형제는 안산제일교회에 등록하였다. 고향을 떠나며 이주할 도시에서 다닐 교회를 먼저 고려했던 그는 그 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한국에 월요일에 입국하고, 목요일에 회사에 가게 되었고, 토요일에 원곡동첼터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에 대예배에 참석하여 등록을 하였습니다.” 네팔에서처럼 안산제일교회 네팔어예배부에서도 찬양인도를 했던 어제이 형제는 네팔어예배부 형제들과 함께 찬양 앨범도 제작했다. “네팔에서 한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이동했지만, 한국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라며 네팔어예배부에서 보낸 시간을 감사해 했다.

어제이 형제는 네팔에 귀국하여 룡비니의 ‘벤엘 찬양교회’의 집사로 사역 중이다.

집사는 교회에서 필요시 설교를 했으며, 향후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를 개척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집사 임명을 받은 네팔 디아스포라를 보면, 사명을 감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안산제일교회는 세례 후 3년, 안산제일교회 출석 2년이 된 네팔 디아스포라에게 집사 임명을 하고 있다.



- 안산제일교회 사역 당시



- 벨엘 찬양교회

7. 모너즈 집사(Manoj Rai)

모너즈 집사는 2004년 한국에 입국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한국에 입국했던 모너즈 집사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2005년 안산제일교회의 네팔 센터를 소개받고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네팔 예비부에 출석하며 2007년 안산제일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 2016년 아내가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고, 아들은 네팔의 기숙사 학교에 있어야 했다. 이 두 부부가 결혼식을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산제일교회는 두 부부를 안산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려주었다. 네팔에 홀로 있는 아들이 마음에 걸린 모너즈 집사는 1년 후 2017년 네팔에 귀국하였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저는 2017년에 귀국해서야 제 아들은 태어나서 13년 만에 아빠 얼굴을 실물로는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앞에 엄마·아빠의 결혼사진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에서 받은 사랑은 하늘과 같습니다.”

모너즈 집사는 현재 간경화로 투병중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는 올해 카투만두 외곽 지역의 마을에 땅을 사고 작은 예배처소를 마련하였다.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전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 결혼식



- 개척한 교회

8. 네팔 디아스포라의 기도

네팔 예배부의 라주라이 형제는 자신의 고향 마을 도디(Dodi Salyan 4 Solukhumbu)에 교회가 세워지길 늘 기도했다. 라주라이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알게 된 네팔 예배부의 형제들 4명이 매 달 헌금을 하기로 결단하고, 매달 5만원의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아진 헌금으로 2015년 12월 작은 예배처소를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며 ‘뉴도디교회’가 시작되었다. 처음 4명의 성도로 시작된 뉴도디 교회는 그 다음 해 20여명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성장하였고, 시타라이(Sita rai) 성도가 사역자로 헌신하여 섬기고 있다. 네팔 예배부의 스텝들과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2017년 9월 850만원을 헌금하여 작은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그해 11월에 12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지금까지 마을에서 50여명을 전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안산제일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협력 지원하고 있다.



- 예배처소 임대 시절



- 신축한 예배당

Ⅲ. 사례분석

국내 이주민 현황을 보면 2007년 100만명, 2016년 200만명, 2019년에는 이주민 250만명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의 4.9%에 이르게 되었다. “2022년 7월말 경기도 인구통계”에 따르면 안산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인 46,729명으로, 안산시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2030년에 500만 다문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⁸⁾하는데, 이처럼 우리나라와 안산시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⁹⁾

다문화사회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안산제일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환대와 포용의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을 실천하고 있다. 안산제일교회는 이주민들을 ‘디아스포라’로 바라보며,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관점¹⁰⁾에서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김영동은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관점에서 디아스포라 선교를 ①‘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Mission to the Diaspora), ②‘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Mission through the Diaspora), ③‘디아스포라를 넘어서는 선교’(Mission beyond the Diaspora) ④‘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는 선교’(Mission with the Diaspora)로 구분한다.¹¹⁾ 이러한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관점으로 안산제일교회 이주민 사역과 역파송 선교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주민 사역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자.

1.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Mission to the Diaspora)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는 “전도 혹은 전도 이전 단계로서 사회 봉사의 형태로 디아스포라 집단에 다가가며, 그 이후에 그들을 제자화하여 예배하는 공동체와 교회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¹²⁾ 즉, ‘디아스포라에게’ 선교하는 단계이다.

“한국에서 교회, 절, 모스크 등 종교 시설을 처음 방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안산의 디아스포라들은¹³⁾ 아래 [그림1]과 같이 응답하였다. ‘가족의 권유’와 ‘평소 알고 있는 이주민의 권유’ 그리고 ‘평소 알고 있는 한국인의 권유’가 각각 28.7%, 25.4%, 12.7%로 전체 응답의 66.8%에 이른다. 이를 볼 때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관계전도, 즉 신뢰에 바탕을 둔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우연히’, ‘혼자서’, ‘전도지’ 등

8) 이지희, “500만 다문화시대, 선교 한계에 놓은 교회의 대안은?”,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3549> (2022년 11월 15일 접속).

9) 황병배,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 『선교신학』 Vol.64(2021), 326. 다문화 사회의 규정은 학자마다 다르나 황병배는 5% 이상의 비율을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는 의견에 동의한다.

10) 김미선, “디아스포라 선교이해와 전략”, 『선교신학』 Vol.39(2015), 56-57. 디아스포라 선교학은 “출생한 지역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적인 사역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선교적 틀”이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핵심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에 모든 인간의 모든 지리학적 이동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며, 이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인 구속사와 연관이 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사람들을 움직여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알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선교인 것이다.”

11) 김영동, “디아스포라 선교학 틀에서 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신학적 과제”, 『장신논단』 Vol.49(2017), 34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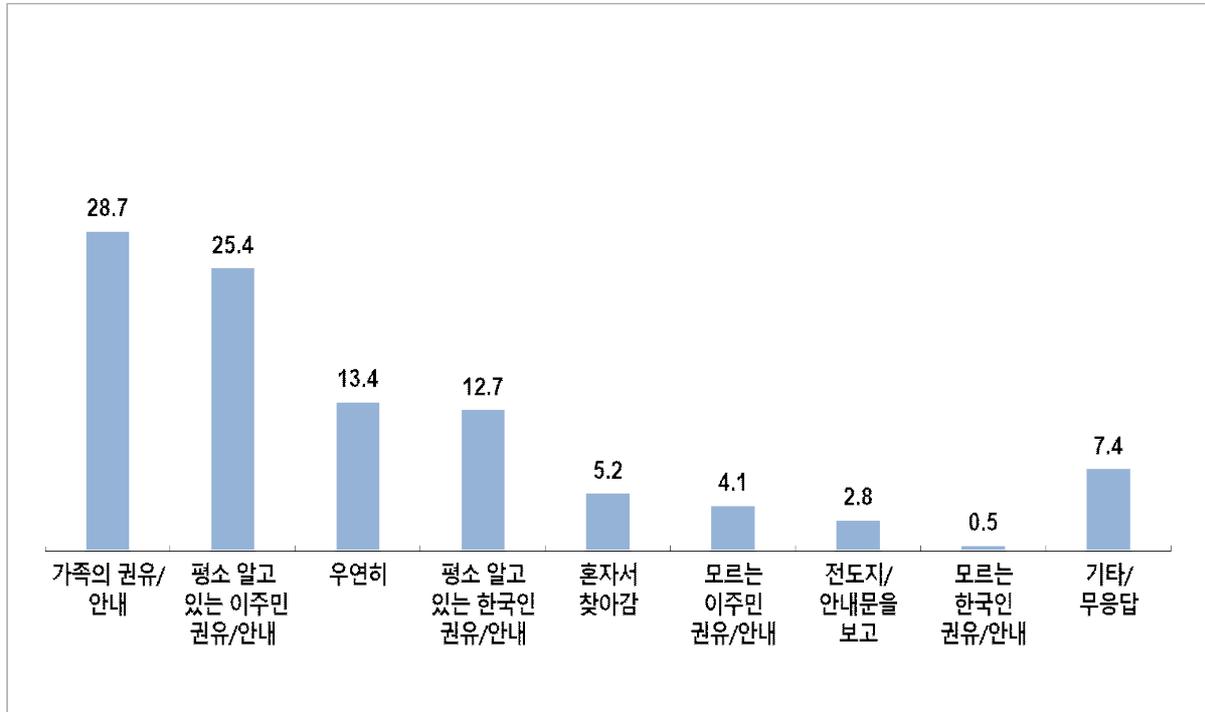
12) 위의 책, 344.

13) 본 설문조사는 안산제일교회에서 (주)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7월 4일부터 50일간, 안산시 이주민상담센터 방문 이주민 45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의 응답이 각각 13.4%, 5.2%, 2.8%로 전체 응답의 21.4% 이다. 이 역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응답률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찾아 나서는 것이(눅 15:4) 기독교 선교 영성임을 기억할 때, 여전히 노방 전도의 필요성도 유효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림1] 종교 시설 방문 계기

(Base=현재 종교를 믿는 자, N=1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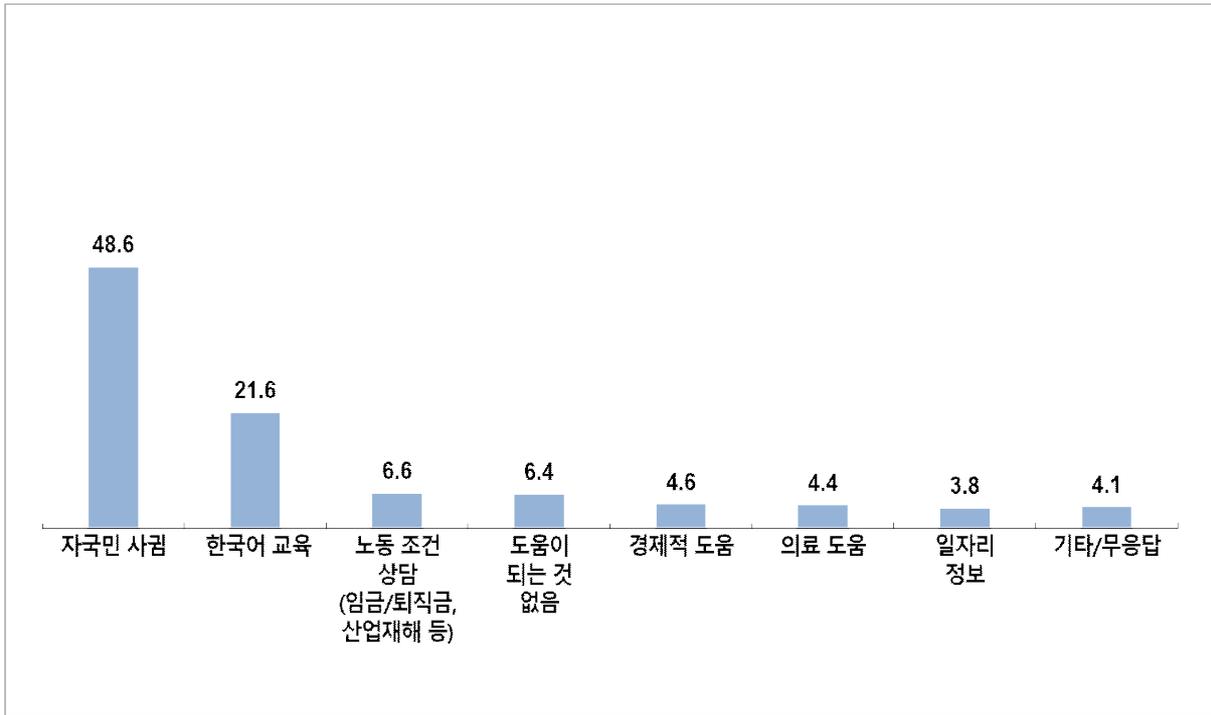


“귀하의 교회, 절, 모스크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래 [그림2]와 같이 응답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자국민 사권’ 48.6%, ‘한국어 교육’ 21.6%, ‘노동 조건(임금/퇴직금, 산업재해 등) 상담’이 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도움이 되는 것 없음’은 6.4%로 종교시설에서 종교 서비스 외에도 생활과 밀접한 문제까지 도움을 얻고, 또한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디아스포라에게 다가갈 때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는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통과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통전적 선교를 이루는 것이다.”¹⁴⁾

14) 김미선, “디아스포라 선교이해와 전략”, 57-58.

[그림2] 종교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Base=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 시설
참석자, N=35, %)



안산제일교회 국제사역위원회는 안산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활동과 함께 정서적 안정 및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아스포라’의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디아스포라’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의료문제, 임금체불, 노동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모녀즈 집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디아스포라를 향한 ‘통전적’ 관심은 모녀즈 집사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값진 선물이 되었다. 복음에서 시작된 ‘통전적 선물’은 모녀즈 집사 가정을 통해 네팔 땅에 다시금 복음으로 ‘역(逆) 전환’되어 흐르고 있다.

2.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Mission through the Diaspora)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친구와 가족이라는 관계망을 통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들의 친족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에게 선교하는 것을 말한다.”¹⁵⁾ 낯선 곳에서 디아스포라 간의 만남은 동질 의식을 형성하며, 이러한 동질감은 선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제이 형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가 안산제일교회를 다니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먼저 입국한 그의 친구’였다. 원래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어제이 형제는 한국 입국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고, 그 가운데 중

15) 김영동, “디아스포라 선교학 틀에서 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신학적 과제”, 345.

요한 선택 기준이 된 것은 바로, ‘먼저 입국한 친구가 안산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어서’였다. 그렇게 입국한 어제이 형제는 입국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안산제일교회에 등록함을 볼 때,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안산제일교회 국제사역위원회 예배부는 현지인 사역자를 청빙함을 통해, 디아스포라들이 주축이 되는 사역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자칫 민족 우월주의로 빠지거나 및 디아스포라를 단지 시혜(施惠)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편협한 선교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디아스포라’ 의식¹⁶⁾ 즉, ‘한 백성’이라는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서로 협업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에 기반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도 직분을 임명하고, 2019년에는 6명의 디아스포라 항존직이 임명되었다.

3. ‘디아스포라를 넘어서는 선교’(Mission beyond the Diaspora)¹⁷⁾

‘디아스포라를 넘어서는 선교’는 “디아스포라로 사는 나라와 고국과 해외에서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타문화 선교를 위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동기부여하고 동력화 하는 것이다.”¹⁸⁾ 즉, “국내 외국인 이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국내의 친구, 친족,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국의 친구, 친족, 이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단계이다.”¹⁹⁾

안산제일교회는 비정주 이주민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 그들이 ‘역파송 선교사’로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안산제일교회 각 예배부는 신앙 및 사역훈련을 통해, 본국에 대한 선교적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라주라이 형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각 예배부에서는 본국에 대한 선교적 열망이 자연스럽게 싹트며, 자발적인 기도와 후원을 통해 본국에 대한 선교를 이곳에서 ‘이미’ 시작하며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본국에 돌아가 있는 성도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 및 예배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사역위원회 예배와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각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4.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는 선교’(Mission with the Diaspora)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는 선교’란 “역파송을 받아 본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현지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선교 네트워크’(Missional networking)와 ‘파트너십’(Partnership)이다.”²⁰⁾

16) 성서는 아브라함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의 성도들까지 ‘디아스포라’로 본다.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전형(典型)이 되신다.

17) 김영동은 “디아스포라에 의한 그리고 넘어서는 선교”(Mission by and beyond the Diaspora)로 소개한다. 본고에서는 “디아스포라에 의한”의 개념은 “디아스포라를 통한”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디아스포라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단순화 하고자 한다.

18) 위의 책, 347.

19) 황병배,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 333.

20) 위의 책, 334.

안산제일교회는 현지인 사역자를 개발하고 동역하는 ‘선교 네트워크’인 ‘Mission: Bridge’를 구축하고 있다. ‘Mission: Bridge’는 우리나라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공동체(community)를 조성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선교 원칙을 가진다. ①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로 부름 받았다. ② 우리는 각 사람의 존엄성과 각 문화의 독특함을 존중하며, ‘브릿지 커뮤니티’로 동역한다. ③ 우리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하며 개인과 사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④ 우리는 선교의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디아스포라 사역자를 세우고 지원하는 일에 힘쓴다. ⑤ 우리는 선교지의 자립을 위해 힘쓰며, 자립 이후에도 ‘브릿지 커뮤니티’를 지속한다.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인 아모스 목사, 수먼 목사를 비롯하여, 안산제일교회 네팔 예배부에서 오랫동안 부장으로 사역한 이형열 선교사를 협력 선교사로 파송하여 네팔 선교 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있다. 라주라이 형제의 기도로 세워진 ‘뉴도디교회’의 시타라이 전도사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역파송 선교사들과 협업하여 네팔 아웃리치를 수차례 진행했다.²¹⁾ 네팔 현지인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확대될 예정으로 ‘네팔 신학생 후원’ 및 ‘교환 학생 기회 부여’, ‘네팔 교회지도자 재교육’ 등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NGO 사역 확대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선교를 통해 선교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1) 네팔 예배부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된 아웃리치는 7회로 파악되며, 필자가 안산제일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던 시기에는 2017년 8월과 2019년 2월, 두 차례를 다녀왔다. 당시 필자가 청년들과 네팔로 아웃리치를 결정한 이유는 단회적인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선교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안산제일교회에는 네팔 예배부가 있어서, 네팔 아웃리치 이후에도 네팔 예배부의 디아스포라를 섬김으로 지속적인 선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네팔 예배부의 디아스포라는 그들의 귀국 이후 네팔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동역자로 보였다. 당시 청년부의 지속적인 선교는 네팔 예배부를 섬기는 것과 더불어, 네팔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지원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비전으로 구체화 되었었다. 이러한 비전은 우리 교회에서 이미 역파송한 ‘디아스포라’가 있었기에 꿈 꿀 수 있었다.

IV. 결론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에 위치한 안산제일교회는 자연스럽게 이주민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안산제일교회의 응답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안산제일교회는 안산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포용했으며 2003년 러시아어 예배부를 시작으로 디아스포라를 향해 더욱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 발걸음이 이제는 네팔, 영어, 중국어 예배부로 확장되어 안산 내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있다.

디아스포라를 향한 사랑의 섬김은 선교적 열매로 이어졌다. 위에서 살펴본 네팔로 되돌아간 역파송 디아스포라들을 볼 때, 네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고백하게 된다. 필자가 알기로는 안산제일교회에서 네팔에 200여개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네팔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학교 학장을 세우기 위해 디아스포라를 위한 예배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시대의 요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응답한 일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사례들을 정리하며 세상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람들을 모으고 흡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안산제일교회의 이주민 사역과 역파송 선교가 쓰임 받았음을 알게 된다. 이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우리 교회의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탄과 경이가 일어난다. 지금도 안산 땅을 거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바라보니,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신비다.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나그네를 향한 안산제일교회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으로 파송되었다.

지금도 세상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디아스포라들이 있다.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또래, 가치관 안에서 생겨난 디아스포라들도 있다.²²⁾ 모든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을 것이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 다양한 디아스포라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안산제일교회의 사례는 특수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이다. 그 포용과 사랑 속에서 그들 역시 자신이 속한 문화와 또래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파송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 세상의 다양한 디아스포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역파송 되어 ‘하나님의 선교’가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길 바란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22) ‘디아스포라’가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등의 용례로 쓰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나그네와 이방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동네에서 이방인과 같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포용과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한 명의 디아스포라가 복음 안에서 포용되었을 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요 4:41) 선교적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마가복음 5장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도 같은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고, “집으로 돌아가 …네 가족에게 알리라”(막 5:19)며 파송하신다.